

# “광산 발전 내가 이끈다”... 벌써 10여명 치열한 경쟁

## 광주 광산구청장

민형배 구청장의 광주시장 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광산구청장 선거에는 벌써 10여 명이 넘는 후보군이 표발을 다지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설 입지자들이 대다수여서 열린 경선전이 예상되며, 합당과 탈당 등의 외풍을 겪은 옛 국민의당 소속 후보군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도 변수로 남아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입지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 구청장과 함께 구청 일을 거들었던 인물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강위원(48) 투계터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는 최근 출판기념회를 열고 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제5기 한총련 의장 출신인 강 상임이사는 강점인 다양한 복지정책을 준비하며 입지를 넓히고 있다.

김삼호(52) 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민 구청장과 함께 구청 일을 거들었던 인물들이다. 김삼호는 지난 경선 때를 살려 광산구에 공을 들이고 있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재직 시절 구축한 두터운 인맥 등이 강점을 꼽히고 있다.

출판 기념회를 통해 출마를 공식화 한 김영록(51) 광주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지역 화폐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위원 상임이사



김삼호 전 이사장



김영록 회장



윤난실 전 센터장



윤봉근 전 시의장



임한필 연구소장



장성수 전 본부장

## 민주당 입지자 많아 당내 열띤 경선전 예고

## 옛 국민의당 후보들 어느당 선택 할지 변수

강조하며 표발을 일구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출마를 준비중인 윤난실(52) 전 광산구공익활동센터장도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만들기’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복지 분야를 공략하고 있다. 공동 육아 등 다양한 보육정책을 내놓겠다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교육위원을 지낸 한 윤봉근(60) 전 광주

시의회 의장도 교육청과 연계한 민주·인권·평화·녹색 교육 환경을 조성, 친환경 식재료 학생 급식 제공 등 교육 관련 공약을 가다듬고 있다.

임한필(48) 광산문화경제연구소 소장도 오는 3월 출판기념회를 준비하고 있는 등 본격적인 출마 행보에 나섰다. 임 소장은 황룡강~어등산~용진산으로 연계된 문화관광벨트를 건설 등의 공약을 내놓을 예정이다.

공식 출마선언을 한 장성수(57) 전 광주 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최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광주 송정역세권 개발 전면 재조정, 평동 포 사격장 부지에 대단위 위탁시설 유치, 광산교육지원청 설치 등을 주요 정책 구상안으로 내놓았다.

옛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광주시의회 이정현 운영위원장과 한 차례 구청장 도전에 나섰던 서준진 전 광산부구청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무소속이고, 서 전 부구청장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이 위원장이 향후 민행당이나 바른미래당에 합류해 구청장 선거에 도전할지 여부도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광산구청장 선거의 주요 현안은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조성 등이 꼽히며 후보들 진영에서도 이와 관련된 공약 마련을 위해 분주한 상태다. /오광록기자 kroh@

## 민주 전략공천 여부·바른미래당 후보 낼지 관심

### 민 구청장 조직도 주목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의 가장 큰 변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와 민형배 구청장 조직의 형태다. 또, 김동철(광산 갑)·권은희(광산을) 의원 등 광산지역 2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바른미래당이라는 점에서 이들이 구청장 후보를 낼지 여부도 관심사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서 민주당 후보와 대결을 펼칠지도 주요 관심 포인트다.

우선 민주당의 전략공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 추천 시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에 대해 전략공천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총 29개 선거구 이내다.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 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이면 2곳, 10개 이하이면 1곳 이내로 하기로 했다. 따라서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이 대상

이 될 수 있다. 특히 여성 출마자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구를 중심으로 ‘여성 정치인 전략 공천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면서 전략공천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 광산구청장 출마자 중 민 구청장과 직·간접적인 인연을 가진 후보가 많다는 점도 주요 관심 포인트다.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윤난실 전 광산구 공익활동센터장, 강위원 투계터광산나눔문화재단 상임이사 등이 민 구청장과 함께 광산구의 일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 3명의 후보는 그동안의 활동 영역이 환경·복지·사회 등으로 서로 다르지만 주요 지지기반을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김동철·권은희 두 명의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이어서 이들의 조직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만큼이나 본선도 치열한 당 대 당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공항 주차 요금 인상되나

### 이용객 크게 늘어 주차난 심각

### KTX 송정역보다 40% 저렴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빌딩 건설과 주차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21일 한국공항공사 광주지사(이하 광주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공항 이용객은 194만여명으로 전년(160만여명) 대비 21%가 늘었다. 지난 2007년 무안공항으로 국제선이 이전한 뒤 국내선 공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공항은 지난해 제주노선 취항 확대로 이용객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현재 운영 중인 김포노선은 2015년 KTX 호남선 개통 이후 대폭 줄어들어 하루 2편(출발 기준) 운항되고 있으나, 제주노선은 저가항공사의 취항으로 해마다 늘어 현재는 하루 17편이 운항되고 있다.

공항 이용객이 늘면서 공항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반면 시설 투자가 없는 탓에 공항 주차장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공항 이용객 중 90% 가량이 제주노선 이용객으로,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장기 주차 차량이 늘어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차장 이용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한 주차 요금도 이 같은 문제를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공항 1일 주

차요금은 6000원으로 인근 KTX 광주 송정역의 1일 주차요금 1만원에 비해 40% 저렴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주차장 만차 일수는 200일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공항 내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늘어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그 동안 공항 직원 주차권 회수, 공항 내 주차장 및 구내 도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주차면 조성, 공항 이용시 대중교통 이용 권장 홍보 등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적었다”며 “앞으로 주차빌딩 건설과 적정 수준의 주차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전남도, 공사비 부풀리기 등 관급공사 부정 대거 적발

전남 관급 공사장에서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공정을 반영해 예산을 허비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공무원과 민간 전문 감사관을 투입해 도내 5억 이상 관급 공사장, 3억 이상 민간 보조사업 공사장 등 모두 17개 현장을 감사한 결과 52.9%에 해당하는 9곳에서

지적 사항이 나왔다.

도는 고발 3명, 훈계 2명 등 12명을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하고 14억5200만원에 대해 공사비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했다.

공사비 102억원 규모의 한 도로 공사장에서는 비탈면 보강 공사를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반 보강 공사 비용이 애초보다 적게 시공됐는

데도 10억4000만원을 감액하지 않기도 했다.

도는 고발, 영장집지 처분과 함께 시공업체, 현장대리인, 감리회사, 책임감리원에는 벌점을 주고, 공사비도 줄여든 만큼 감액하도록 했다.

공사비 35억9000만원 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장 사무실을 계획의 절반 크기로 설치하고 6400만원가량을 과다·중복계상하기도 한 것으로 지적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1일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6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열렸다. 참석한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발전계획 수립 등 협의

### 6차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

윤장현 광주시장, 이재형 전남지사직무대행(행정부지사), 이병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23명은 21일 오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6차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빛가람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등을 협의했다.

이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제4회 빛가람 페스티벌 개최와 로컬푸드 및 친환경농산물 공급사업 이용 등을 2018년 공동과제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2017년도 공동과제는 초·중·고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혁신도시 꽃길 가꾸기 사업 등이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4회 공동협의회장으로 윤 시장과 박성철 한전KDN 사장을 선임하기도 했다. 공동협의회장은 앞으로 1년 동안 빛가

람공동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혁신도시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장협의회를 주관하며 업무를 수행한다.

윤 시장은 “혁신도시 시즌 2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박성철 한전KDN 시장과 함께 공동협의회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의 특별자치구인 빛가람혁신도시가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 역사와 함께 광주·전남의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본사 및 영업본부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 주 공 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062-953-2995

익 산 공 장 :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063-835-4771